



민족의 미래를 양 어깨에 짊어 질
자주여성, 민주남성의 소식터!!!

인 · 문 · 여 ·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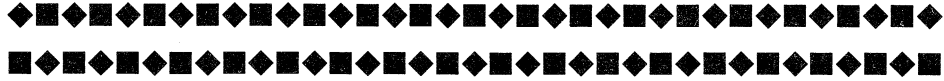
제 8 호

(1994년 5월)

제10대 인문대 여학생회

열린공간 편집부





민족의 미래를 양 어깨에 짊어 질
자주여성, 민주남성의 소식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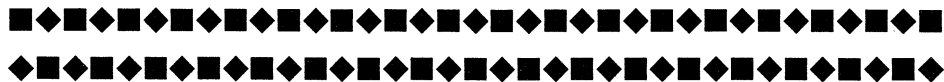
인 · 문 · 여 · 성

제 8 호

(1994년 5월)

제10대 인문대 여학생회

열린공간 편집부



금 달는 순서

- 여는 시-----“성녀와 마녀 사이”/2~3
- 여학생회장 인사글-----/4
- 인문여성 8호를 펴내며-----/5
- 기획-----현대의 성문화에 대해/6~10
- 인문여성 글터-----대동학교/11~13
 - 서평/14~15
 - 연극평/16~17
 - 기행문/18~20
- 각 과 여연예기----21~24
- 여연인 설문조사-----/25~27
- 토막소식-----‘성희롱사건’과 그 판결 이 후/28~29
- 여연 세로모임 예기-----/30~32
- 알아봅시다-----여성학이란 무엇인가/33~34
- 인터뷰-----인문여성을 찾아/35~37
- 각 과 탁아소모임 예기-----38~39
- 주제투고-----학우들의 탁아인식 전환이 필요하다/40~44
- 탁아소식-----후원금과 ‘탁. 특. 위’에 대해/45
- 탁아방 방문기-----/46~47
- 탁아도서소개-----반쪽이의 육아일기/48
- 편집후기◆◆◆◆◆/49
- 달는 시-----망월동에 서서/50



여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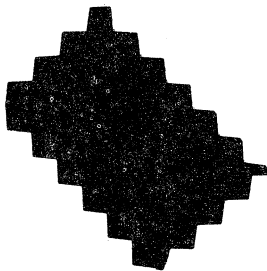
성녀와 막녀 사이

김승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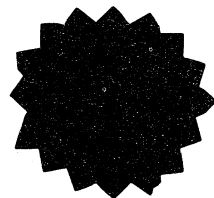
엄마, 엄마,
 그대는 성모가 되어 주세요,
 한국전래동화 속의 착한 엄마들처럼
 참, 아니, 사임당 신씨
 신사임당 엄마처럼 완벽한 여인이 되어
 나에게 한평생 변함없는 모성의 모유를 주셔야 해요,
 이 험한 세상
 엄마마저, 엄마마저.... 난 어떻게...



여보, 여보,
 당신은 성녀가 되어 주오,
 간호부처럼 약을 주고 매춘부처럼 꽃을 주고
 트실트실한 가정부도 되어
 나에게 변함없이 행복한 안방을 보여주어야 하오,
 이 험한 세상
 당신마저, 당신마저..... 난 어떻게....



여자는 액자가 되어간다,
 액자 속의 정물화처럼
 고요하게 평화롭게,
 액자 속의 가훈처럼
 평화롭고 의젓하게,
 여자는 조용히 도매금으로 넋을 팔아 넘기고
 남자들의 꿈으로 미화되어 도배되어



4/ 자주여성, 민주남성의 소식터

여학생회장 인사글

“심청이가 심봉사를 위해 공양미 삼백 섬 때문에 인당수에 풍당(?)하잖아.
근데 빠지기 전에 눈 뜨고.
근데 빠졌는데 인당수 물 알고.
근데 빠졌는데 심청이 안 죽고.
근데 죽었는데 용궁없고”



“술에 취한 주인의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개가 물에 뛰어 들었는데
물에 빠져 죽고.
기껏 물 적셔 나왔는데 다른 개가 끄고 있고.
또, 기껏 물 적셔 나왔는데 소방차 와 있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소위 ‘썰렁 시리즈’...
이야기 들었을때 배짜라~하면서 킁킁거렸는데 이렇게 적고 보니 진짜 썰렁~하고,
이런 걸 또 뭐라고 하더라.
차 펄권, 우 북극곰, 전빙 후성이라나!

우리 편집부장님이 좀 획기적으로 참신하게 인사글 쓰라고 하기에 ‘뭐라고
쓰나’공공대며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편집부장
님, 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소.)근데 직접 말하려면 한 칼 할 수 있는
데!

이번 19,20일에 있을 여건 이동 여학생회를 통해 학우들을 직접 만나려 하니
다 학우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코너를 준비하고 있구요, 인문여학
생들의 하후생활도 보여드리구요.(물론 위의 ‘썰렁시리즈’도 재미있게 이야
기 해줄게요)

햇살 따사로운 5월...

약동하는 5월...

그리고 피어선 5월입니다.

아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5월을 가슴깊이 느끼고 사랑해 보지 않을까요?

제10대 인문대 여학생회장 박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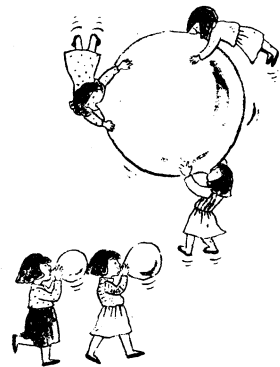
◆인문여성 8호를 펴내며...◆

제10대 인문여학이 “민족의 미래를 양 어깨에 짊어질 자주여성, 민주남성의 소식터”라는 이름으로 2번째 ‘인문여성(8호)’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제10대 인문여학에서는요, 그간 ‘인문여성’이 학우들의 목소리와 모습들을 그다지 다양하게 담아내지 못했었고, 또 ‘소식지’라는 성격에 맞추다보니 내용성이 부족했었던 한계를 극복해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적과 충고가 많은 도움이 되겠죠!

8호에서는 여연과 탁아활동에 대한 내용함께 실어 조금 빵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성문제, 탁아현실은 알아야 하고 온 몸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기에 8호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여연’과 ‘탁아소모임’에 대한 여러분의 큰 관심 기대하구요, ‘인문여성’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기

획

◀▷ 현대의 성문화에 대해

-성 상품화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사랑과 성은 인간의 마음 속을 차지하며 예술작품의 영원한 주제로 동경되어 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미지의 세계에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인류의 삶 속에서 사랑과 성이 나름대로의 형태로 지속되어 왔으나 현대 우리 사회는 전근대의 봉건성과 근대적 낭만적 성향, 탈근대의 개방적 성규범이 혼재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성규범의 혼란 속에서 한편에서는 사랑, 성에 대한 은폐와 한편에서는 왜곡되고 일그러진 기형 성문화를 양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성과 사랑을 은폐하고, 단지 사적영역일 뿐이라고 간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성문화 특성과 지양해야 할 바를 정확히 짚어보고 '세계를 창조하는 힘', '모든 것을 결합시키는 우주적인 힘'이라는 사랑, 성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전통 성문화를 살펴보고 현대사회의 성문화 특성, 특히 성 상품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한국 성문화의 전통 - 가부장적 전통

가부장제란 남녀간의 역할구분인 성차별의 기원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러한 차별의 강화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중심의 위계체제 유지에 매개체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역사에서 가부장제는 적어도 초기 국가형태를 띄어 온 삼국시대부터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적 이념의 사회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가부장제는 보편적 사회제도로써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를 지배한 유교의 성관(성관)을 보면 자연과 인간의 세계일체음을 양으로 이분하며, 여자와 남자도 음과 양으로 대칭시킨다. 남녀교합에 대해서는 새생명을 만드는 것에 근본의미를 두고 성은 혈통의 순수성과 가통(가통)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간주된다. 유교적 성 습관의 중요한 전통은 조선시대에 깊이 뿌리내린 여성의 정절문화에 있다. 조선사회의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군주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순(효순), 남편에 대한 수절을 강조하였다. 여성의 정절문화는 조선사회의 부부유별, 여성의 외출 및 복장규제, 내외법 등의 풍습과 남녀 유별적 역할과 언행을 철저히 내면화시키는 내훈서를 통해 강화되었다. 결혼 후 아내는 남편에게 친애를 표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축첩에 대해서도 투기하지 않고 관용할 것을 요구당하였다. 이 모든 것은 조선사회의 남성에게 허용된 이중적 성생활의 특권과 심한 대조를 이룬다.

조선시대 기녀제도는 애정없는 부부생활과 주색을 즐기는 남성의 여흥풍습을 반영한다. 기생은 내외법이 엄격했던 사회에서 대화와 정을 통하고 풍류를 즐기게 하는 유일하게 개방된 신분집단이었다. 이는 조선의 남자들이 성과 사랑의 상대를 아내보다는 혼외의 여자에게서 구하는 습관을 갖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조선사회 성문화의 전통은 가문계승을 위해 성의 생식적 기능을 절대시하는 풍조, 여성을 남성에게 성적으로 예속시키는 남존여비의 관계, 여성의 성을 극도로 억압하는 정절문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축첩, 기

녀제도를 통해 남성에게 이중적 성생활의 특권을 부여한 관습으로 특징지어진다.

3. 현대 성문화의 특성 - 성 상품화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성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 근대화에 따른 사회변동과 서양문물의 영향에 의해 성생활과 성관념이 점차 자유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9세기부터 성의 상품화 현상이 파급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 와서는 다양한 신종 성산업도 번창하였다.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적 성문화에서 남성에게 성적 자유를, 여성에게 순결과 정절을 강요하는 이중적 성윤리의 전통은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와 매춘제도를 공존시킴으로써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남녀간의 성적교류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성을 사물화시켰다.

성의 사물화는 인간의 노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을 상품가치로 전환시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확대의 한 현상이다. 이윤증대의 목적에 따라 에로티시즘이 소비와 여가의 산업경제와 상업문화에 적극 이용되면서 인간의 성은 한낱 상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오늘의 성문화는 남성에게 생존을 의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성을 주체성을 상실한 상품으로 비하시키고 여성의 경제적 의존은 사랑받기 위해 성적 매력을 가꾸게 하고, 남성의 능력과 여성의 성적매력을 교환하는 시장의 원리는 비공식적 성의 영역은 물론 공식적 성의 영역도 잠식당해가고 있다. 또한 여성의 성적매력을 노동력의 일부분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비서, 안내원, 호스티스, 판매원 등의 직업에서 성의 상품가치를 최대한 개발, 이용하는 경향이 증대한다. 직장의 성추행도 여성을 일종의 '성적노동의 예비군'으로 만드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소비상품과 광고는 여성의 성적매력과 에로티시즘을 부각시켜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사물, 이미지 또는 익명의 성적대상으로 전

락하게 만든다. 여성의 성과 육체의 물상화는 성의 상품화에 일조를 하면서 여성의 성적매력 가꾸기를 부추기며 신데렐라의 꿈을 팔고 있는데, 이 현상에 각종 미인대회와 미용산업이 합세하고 있으며 이런 상품화 현상은 자본주의 경제와 맞물리어 더욱 증폭됨을 볼 수 있다.

성의 상품화가 확산되면서 한국사회에서 성의 자유화는, 성적유희와 오락을 즐기고 성산업이 자극하는 성문란 행위들을 흥내내는 것과 동일시 되는 경향이 있다. 서구의 성개방 풍조가 주로 음란, 퇴폐의 내용을 담은 상업물의 수입으로 전파되고 저질문화로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거나 성의 퇴폐, 폭력, 범죄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성상품화 현상에서 빠뜨릴 수 없는 매매춘은 시대마다 성행되어 왔으며 성의 이중 규범을 적용하여 정당화시키면서 남성의 성적방종을 수용케 하는 비공식적 성의 영역에서의 매춘여성을 가정의 아내와 딸을 순결하게 지켜주는 '미덕의 수호자'요 '사회의 필요악'이며, 이중적 성규범의 대가를 치르는 '속죄양'이라고도 일컬으며 정당화시켜 왔다. 여성의 성이 도구화 되는 성문화에서는 그 반작용으로 매춘남성과 호스트바가 등장하게 된다. 성의 퇴폐와 비인간화의 결과가 여성의 성과 더불어 남성의 성도 상품화시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국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기생관광을 증진시킨 것도 향락산업을 부추기는데 기여하였는데, 고려시대 공녀, 일제시대 공창과 군위안부, 분단시대의 양공주가 희생되었듯이 산업화시대의 관광기생은 경제성장을 위한 희생물이 되고 있다. 향락산업을 부채질한 요인으로 접대문화, 기생관광 외에도 권위주의적 사회의 과도한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적 성 쾌락주의 확산의 예인 '오렌지족' 문화의 퇴폐성과 피상성을 천민 자본주의가 만연시킨 성상품화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

4. 나오며

지금까지 전통 성문화와 현대 성문화의 특성 중 성상품화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중적 성규범의 성문화에서 여성은 성적 대상물이 되고 대상물과 관계하는 남성도 그 성관계에서 소외되므로 남성과 여성 모두 비인간화 되고 물상화 된다. 과거와 현재의 역사가 물려주는 성과 사랑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남자의 세계가 여자의 세계를 압도하는 관계를 토대로 형성되었기에 남녀간의 대등한 인격적 교류를 불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상품화가 산업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라 체념해 버릴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사랑과 성이 성역할 체계와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남성중심적 성문화를 이룬 만큼 남성성과 여성성의 뒤틀린 모습을 바로 잡음으로써 종래의 비대칭적 관계로 조화시키는데 일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세대는 기존의 성문화의 모순되고 파괴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는 곧 기존사회가 성과 사랑에 부여한 '여성적, 남성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한 문화창출을 의미하며 바로 우리들의 어깨에 지워진 과제인 것이다.



세네기글

대동학교에 대한 기억

영문과 94학번 김선옥

대동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선배따라 가서 강연듣고 하던게 바로 옛 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나 지났구나. 며칠 전 선배 언니가 날 찾아와 이 글을 써 보겠냐고 했을때 무척 망설였다. 사실 난 글재주도 없고 이런 글을 한 번도 써 본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펜을 들게 된건 대동학교에 대한 내 느낌이나 생각들을 정리하고 얘기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대동학교에서 제일 기억나는 것은 강연 듣고 난 뒤 과로 돌아와서 선배, 동기들이 모여서 토론한 것이다. 대학이 중·고등학교와 다른 점 중 하나가 토론을 많이 한다는 것이기도 한 것 같다. 이번 토론에서 동기들과 많은 얘기를 해 보았다. 진정한 대학이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남녀차별 등등... 그 중 남녀차별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나누었다. 처음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놀라고 격분하기도 했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나 내 생각만이 옳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토론을 많이 가져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실생활에 많이 적용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 데모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날, 학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소리 बारबार 지른 것도 떠오른다. 소운동장에서 줄 맞춰 나올 때 이런 건 무섭다며 친구들과 빠져나올까 생각도 해 보았지만 끝까지 해 보자는 생각에 따라 나섰다. '수입개방 반대하는 우리는 자주여성, 민주남성'이라는 말을 몇 번이고 외쳤다. 그 때까지만 해도 수입개방이라는 게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진 않았지만 막연히 수입개방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다. 야외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는 지칠대로 지쳐 있었지만 모두들 신나게 즐기는 모습에 나도 따라 잘 놀았다. 비록 끝까지 남아 있진 못했지만 마무리도 좋았다.

이 대동학교를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나의 생활에 대해 반성도 많이 했다. 내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껏 난 남들 하는 대로만 따라하고 내 일에만 매달려 사는 나 보다 더 큰 이 사회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어떻게 하면 이런 내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해 보았는데 아직 그렇게 명확한 해답은 얻어내질 못했다. 그냥 '자주여성'이라는 말이 어울리게 될 때까지 조금씩 노력해 가야겠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한다.

대학생활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못한 새내기들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데 대해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 내년에 내 후배들에게 꼭 가라고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때는 많은 후배들 손 잡고 많은 동기들 손잡고 가고 싶다.



대동학교를 마친 후...

인문과 94학번 김은영

대학에 들어와서 모교지 다음으로 나에게 큰 행사로 다가온 것이 '대동학교'였다. 처음 뭘 몰랐을 땐 그렇게 참석하고 싶진 않았다. 그렇지만 언니들이 재미있고,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해 주어서 참석을 했다.

입학식날 구성에 선생님의 강연은 올바른 이성관계에 대한 생각이 없던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강연이 끝나고 과 방으로 돌아와서 학우들과 열띤 토론도 했는데 각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다른 학우들의 말도 들어주고, 정말 좋은 분위기였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다른 과는 9시쯤 되어 집으로 갔지만 우리 과는 10시 넘도록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닌가! 안영민 선배님의 강연에선 올바른 대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나에게겐 약간 어려운 것 같았다. 그래도 우리 새내기들에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첫째, 둘째날도 좋은 시간이었지만 셋째날의 대동풀이가 가장 재미있고 즐거웠다. 모르는 다른 과, 단대 학우들과 몸을 부대끼며 노래하고 율동하고 모두 광분(?)한 것 같았다. 풍물패를 따라 학교를 돌아 야공에 도착해서 동창회장을 뽐고 또 다른 율동을 배우고...

마지막, 모든 촛불을 손에 쥐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지도못을 돌 때, 정말 눈물이 핑 돌았다. 뭐랄까 하나라는 느낌... 여하튼 그 때 그 기분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지금도 그 때 알게 된 학우들과 인사를 하며 대동학교 이야기를 한다. 다음엔 나의 후배들에게 나의 선배 언니들이 했던 말을 하겠지?

“대동학교 가자. 정말 재미있데이, 안가면 후회한다 카이”

수입개방 막아내는 우리는 지주여성 민주남성



서평

「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

철학과 91학번 김열미

우리과 모선배는 이 소설에 대해 황당하다고 말한다. 뭐 그런 얘기가 다 있냐구. 하지만 그런 황당한 얘기가 우리들의 화제거리가 되곤 한다.

강민주는 소설 속의 인물이다. 그리고 소설 안에서도 결코 평범한 여성이지 않다. 그런 그녀가 세상을 놀래킨다. 세상의 여성들에게 그녀들의 무지와 환상을 깨우치기 위해, 그리고 매맞고 짐승취급 당하며 남편을 증오하지만 결코 그를 떠나지 못하는 아내들에 대한 분노와 연민으로 당대의 명배우 백승하를 도려내 버렸다. 세상은 발칵 뒤집힌다. 소설 밖의 세상도 발칵 뒤집히긴 마찬가지이다. 과격한 페미니스트가 너무나 인격적이고 선량한 잘난 남자를 잡는다고... 마치 자신의 상투를 잡힌 듯이 모두 백승하를 옹호하고 강민주를 새디스트 취급을 한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뒤집혀 있다. 그녀는 뒤집힌 세상을 바로잡기위해 내려온 신의 대리자였다. 탁상공론의 페미니스트이기를 거부하고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자는 말보다는 백승하를 통해 그녀의 온 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선언한다. 그녀는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세상을 비웃어 준다. 그래서 강민주는 소설 속에 있는 것이다. 모든 금지된 것은 유혹이다. 강민주에게 금지된 유혹은 백승하에 대한 사랑이었다. 백승하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할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사랑해서도 안되는 더럽고 모순투성이인 세상의 대표이다. 그런 백승하를 사랑하게 된 계기는 백승하에게서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절절히 그리워하고 있는 백승하의 모습에서 민주는 연민을 느꼈던 것이다. 적대적 모순에서 화해의 길로 접어드는 두 사람의 마지막 화합무드를 깨뜨린 건 남기의 민주에 대한 사랑, 즉 신의 우상화였다. 결국 강민주는 스스로를 신격화했지만 그 때문에 세인을 비웃어 주던 그녀가 세인인 비웃는 강민주로 전락해 버린 셈이다. 유혹과 금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강민주는 스스로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써 백승하의 입을 통해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두고 페미니즘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줄 안다. 잘못된 관점에서의 출발 및 남녀의 대립구도, 그러나 나는 여기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은 소설이지 결코 페미니즘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연극평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독문과 93학번 이낙창

글자로 인쇄된 것을 보고 난 느낌보다 소위 종합예술이라 말하는 연극을 보고 난 느낌이 더 가슴에 와 닿지 않을까. 모든 상황을 눈 앞에 갖다 놓아주니까 말이다.

몇 달 전부터 읽어야지 해놓고선 결국 읽지 못한 공지영씨의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를 각색해서 연극으로 내놓았다는 소식은 이제 연극으로 인해서 읽어야하는 임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날듯이 기뻐다.

하지만 공연시간에 5분 늦은 죄로 맨 뒷좌석에서 앉아 볼 수밖에 없는 불리함으로 인해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2시간의 연극이 막을 내리고 돌아서는데 왜 그리 몸이 무거워지는지, 커다란 바윗덩어리가 머리와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여성문제이고 그렇기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다. 하지만 가장 흘려버리기 쉬운 문제가 이것이기에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끌어 온 여성문제!

이번 연극은 바로 이 문제를 부여잡고 우리들에게 실타래를 무대위에 던져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타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그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을 어디서 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는 모두 관객에게 떠 맡기고 있었다.

내가 머리가 무겁고 답답한 이유는 왜 연극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지, 또 나는 분명 엉킨 실타래를 보았으니 풀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난감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마당극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관객들과 분리된 무대가 어색했고 서울방언은 순수한 경상도 토박이에게 거리감이 느껴지고 자주 바뀌는 무대장면은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나에게 혼란함이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그러니까 심각한 사태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성주의 연극이 공연되어 문제점을 제시해 주는데

무한히 기쁜 것은 사실이다. 분명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풀어야 할 일들인 것이다.

무대는 자신의 재능과 자아실현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에 넘치는 혜완, 영선, 경혜 세 사람이 열게 된다. 이들은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자신의 일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아이와 남편의 몰이해로 이혼까지 이르는 혜완,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버리고 헌신하지만 결국 술 없이는 살 수 없게 되고 자살소동을 일으키는 영선, 의사부인인 소위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사는 경혜는 남편의 외도에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려 애쓰게 되고...

이들을 보며 난 심각한(?) 상태에 빠지진 않았다. 분명 이들이 우리가 앞으로 부딪혀야 하는 모습이고 내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인데 난 저렇게 가지야 안되지. 저 모습은 몇몇 사람들의 모습일꺼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괴로와할 때 '참 안되었구나', '어쩔 수 밖에 없는가' 하는 슬픔과 안타까움 뿐이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해결점 제시를 해주지 못하고 영선은 자살을 하고 혜완이와 경혜는 여행을 떠나는 장면으로 끝나는 연극에 더 답답해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비록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는데 사실이라고 말 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연극에서의 엉키고 엉킨 실타래를 바라보며 어떻게 풀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혜완이 경혜에게 해 준 말이고 난 아직 이 말 뜻을 잘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난 여러분들께 무소처럼 깨끗하게 그리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다.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닥친 불행은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리화시켜 버리지 않는, 그리고 혼자가 아닌 주위에 고개 돌려 함께 나아가는 삶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린 우리의 재능과 자아실현에 자신을 가지고 있는 여대생이며 그리고 삶에 자신이 있지 않은가!!!

이젠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 같다. ■

기행문

할매들의 유럽 나들이

일문과 91학번 박선영

영국의 런던.

달리는 이층 버스에서 뛰어 내리다가 도로에서 뒹구는 세 사람의 동양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나와 내 친구 두명. 우리는 “뭘 보나?” 하며 태연한 척 했지만 내심 부끄러웠다. 우리가 내려야 할 정거장에 버스가 서지 않고 지나쳐 망설이고 있는데, 영국인 두 명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리는 거였다. 이렇게 내리는 건가? 정말이지 다른 차가 달려오고 있었더라면 큰 사고라도 날 뻔 했다. 보험혜택을 받을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앉을 데만 있으면 엉덩이가 저절로 내려가네. 할마시, 그만 좀 앉아라. 4학년 표내나?”

“히히, 그래도 나이는 못 속인다. 퇴계가 그냥 나온 말이야?”

농담으로 주고 받는 말 속에서 우리 나이가 23살, 4학년임을 인정했지만 마음은 Fresh Women! 그런 와중에 우리가 만난 여선생님 세 분이 기억에 남는다. 로마에서 같은 숙소에 묵는 한국인이 있다기에 반가워서 우리 방으로 찾아오신 언니 세 분이 있었다. 처음에 우리는 동갑 정도로 보고 실례를 범할 뻔 하였다. 4학년을 거친 언니들에게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를 이야기하다 보니 취업상담처럼 되어 버렸다. 아! 지나야 할 난관, 취업이여!

해외 연수겸 파견 근무 나와 있는 일본인 아가씨를 만난 것도 뜻밖의 경험이었다. 25살이고 대학 졸업한 지 일년이 되었는데 소위 엘리트 여성이었다. 우리를 일본인으로 생각하고 다가 왔다가 행선지가 같아 동행한 아가씨였다. 일본에서도 여성들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건 힘든 일이고 요즘은 일본 경제가 불황이어서 대졸 취업도 어려운 때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일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했다.

독일의 중세 건축을 간직한 도시들을 다니던 중 한 독일인 청년이 친절

하게 말을 걸어 왔다. 짐도 몇 개 들어주고, 마침 뉘른베르크까지 같이 가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청년은 전날 뉴스에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고 했다. 안 그래도 오전에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신문에 난 한국의 쌀시위 이야기를 들었던 참에, 또 무슨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귀를 기울였다. 그 사람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하수가 제대로 통역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의아하기만 했다. 그런데 그 때 기차안에 있던 승객이 우리에게 그 사람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일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독일인 중의 하나로 정신 착란증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니 독일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다.

여자 셋이서 여행을 한다? 여행 경비면에서나, 여행 준비면에서나 혼자 하는 여행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장점이 많다. 그 중에서도 뺄 수 없는 것이 안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도 성폭력에까지 치안이 미치지 못했다. 열차 화장실에서 우리나라 배낭 여행족이 성폭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도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에 다녀 오면서 인적이 드물어 피나 신경이 쓰였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셋은 유럽에 원정은 쾅패인 양 야밤에까지 활보를 하고 다녔다.

연말은 독일의 뮌헨에서 맞게 되었다. 쌍용에서 영국으로 연수 나오신 분이 휴가를 얻어 대륙 쪽을 여행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차 시간을 기다리는 중에 우리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삼성에서 해외 연수를 나오신 분을 만나게 되어 생각지도 않았던 정겨운 자리가 되었다.

크리스마스도 뜻밖의 일행이 생겨 인상적으로 보냈다. 빈 소년 합창단의 노래를 듣기위해 크리스마스를 빈에서 맞았다. 나는 숙소에서 자고 친구들은 미사를 드리러 성당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만난 한국인 아저씨와 함께 왔다. 계명대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체코스로바키아 삼성 지사에서 근무하는 이 선배님의 대학시절 애기와 연애담, 절로 나온 노래로 마치 M.T를 온 듯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꼬마 둘을 데리고 가족여행을 하시던, 순천에 사시는 아줌마 아저씨를 만났던 일, 대학 다니는 아들, 딸과 함께 여행을 하시던 어르신과 일행이 되었던 일, 그 때 외국어 대학교 4학년인 아들이 우리 모두의 사주팔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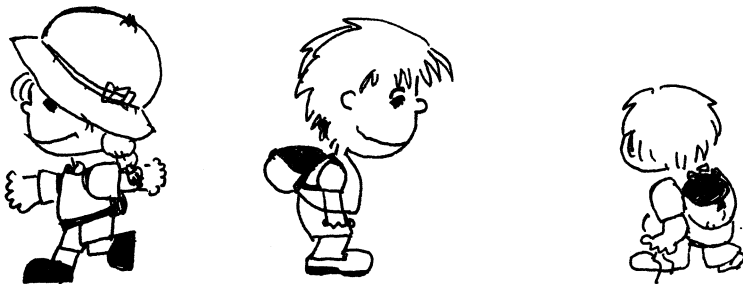
봐 주었다. 기차 탈 때 인연이 되어 알게 된 기자로 있는 아저씨와 파사우 대학에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아줌마 부부. 각 나라 음식을 맛보는 여행은 학생으로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박물관 관람을 기준으로 하는 여행은 수준이 못미치고, 지도를 들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난 여행을 한 것 같다.

그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내가 한국인이구나.'라는 것...

나는 여행을 참 좋아 한다. 이번에 여행을 유럽으로 결정한 것은 유럽 자체가 흥미로웠던 것은 아니다. 난 유럽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정치, 음악, 미술, 철학 모든 것에 대해 문외한이다. 걸만 보고 돌아 올 소비적인 여행이 될 여지가 있는 속에서 학생으로서 혜택-한 달이 넘는 시간을 자유로이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모든 면에서 돈이 적게 든다-는 점으로 유럽을 여행한다면 학생때가 나올 것 같았다. 여행 후의 느낌인데, 유럽 사람들에게 젊음이란 큰 의미인 것 같았다. 과감하고 확시로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보니 신세대를 표현하는 말과 닮은 것 같다. 여행 동안 일관된 것은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였다. 세계사를 배웠지만, 3년 전에 배웠으니까 하는 변명을 일삼은 여행이었다고나 할까.

아침에 숙소를 나서기 전에는 일정을 확인하고 취침 전에는 하루를 정리 하면서 조레, 종레 형식을 흉내내었다. 세 사람의 살림을 맡은 정의는 환율에 신경을 쓰며 우리의 알뜰 여행을 책임졌고 나는 여행 일정과 남은 음식 처리를 맡았고 하수는 독일어를 책임졌다. 제법 '체계'라는 것을 시도해보았다. 모두들 단체 생활에 익숙한 덕인 것 같다.

이제는 여자 셋이 모이면 그릇이 깨진다는 말-쓰일 일이 없겠지?



각과 여연 예기

인문대를 빛낸 11개과 여연


우·리·과 여·연·은·요!

*국문과(또야기) 

인문과학의 자긍심, 나라사랑의 첫걸음인 국문과 여성문제연구모임의 애칭은 '또야기'(또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껏 무지했던 전반적인 여성문제들을 올바르게 알고 또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작고 소박한 노력,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인간 사랑!!

어때요? 저희과 여연 함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영문과(후레지아 향기같은 나는 나) 

“영문과에 여학생이 와 이리 많노. 말세다 말세 ” 어느 교수님의 충격적인 말씀!

우리는 이렇게 바로 가까이에서 느끼는 차별의식에서 부터 시작해 여성학의 좀더 학문적인 체계를 공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학년은 살아있다'를 몸소 보여주려는 '91 진소영, 최윤영, 김연정, 영문 여연의 핵 '93 김은진, 여지희, 오명희, 조민정, 정승임, 잘 살아 보겠다고 들어온 '94 김영아, 박윤림, 신지윤, 신세영, 이해진, 차성운, 그리고 졸업은 했지만 1학년 스터디에 교사로 참여하는 등 기업을 토하는 '90 이상일 언니.

이렇게 대식구가 재미나게 살아요.

아 참 들은 애긴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소모임이 여연이라면서요?

***사학과 (담리)** 

1990년 격동의 90년대가 시작되면서 민족 사학에서도 역사의 꿈틀거림이 있었으니 바로 '담장을 넘는 목소리'라는 사람사랑의 모임이라 하겠다.

가족적인 분위기 창출과 나만의 지식이 아닌 함께 하는 실천을 위해 노력할 그대들 담리인이여!!

회비 납부에 있어서도 복현골 모범이 되는 여연이 되자!

***철학과 (Gender)** 

페미니즘 운동이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권리 획득을 고민하는 차원을 넘어선지는 오래됐다.

이제는 사회속에서의 여성을 생각하고 남성을 생각하며 더 나아가 인간을 생각해야 한다.

남과 여의 대립 투쟁적 구도는 페미니스트 내부의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Sex가 아닌 Gender의 진정한 인식과 자각을 바탕으로 한 남녀의 차이가 서로의 장점으로 빛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위 여연공부를 하는 이들의 목적이 아닐까.

우리 열미,희정이,연경이,연희,요한이,은화 그리고 가끔씩 참석하는 지혜사랑 人의 작은 바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문과 (해바라기)** 

안녕하세요?

불문과 여연의 이름은 '해바라기'입니다. 왜 '해바라기'냐구요? 궁금하신 분은 불문과 학회방에서 똑똑한 여연을 찾아 주시면...

좀 더 깊은 내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러분과 함께 여성문제를 공

푸하하 !! 나!나!

경아 아줌마의 튼튼한 다리, 경예의 공룡주먹, 미진이의 반짝이는 이, 상화의 까만 피부, 기옥이의 불품없는 팔뚝, 정민이의 이쁜 머리카락(?), 그리고 웅감하고 씩씩하고 참신빠끔한 경자, 경주, 춘희 새내기들! 푸하하!! '나는 나'이렇게 웃을만 하지요?

고사도 탄탄하고 스터디 분위기도 화기에때(?)하고 인문대 어디에, 아니 복현 어디에 내어 놓아도 자랑할만한 여연임을 자부합니다.

헌내기는 월요일 오전 10시, 새내기는 수요일 오전 9시에 5층 고인과 학회방에서 공부합니다.궁금하신 분은 일단 와보시면 알게됩니다. 94년 고인과에도 여학생회 건설을 위하여. 화이팅!

*일문과(새벽)

여성문제를 재미있게 또 진지하게 생활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뽕을 뽑고 아작을 내면서 풀어가는 소모임 ! 바로 일문 여연 '새벽' 입니다.

'93의 너무나 참한 희주,선아,수연을 중심으로 좀 늙은 92 강호가 깡겨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노문과(바투)

안녕하세요? 노문과 '바투'입니다.

'바투'는요 '조금씩 가까이'라는 순 한글 말이고요, 정말 이름대로 생활속의 여성문제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생활속의 일들을 때론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자주여성, 민주남성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여연인 신문조사

인문대의 자랑, 복현의 자랑!-

인문 여연 학우들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시험을 치루듯이 신중하게 그러나 공트를 쓰듯이 재미있게...)

1. 대학 4년동안 이것만은 꼭...

(가령 여연에 목숨 아니 청춘을 걸겠다.)

- 한가지 일에 미치고 싶다.아직은 그 한가지름 찾지 못했지만 지금도 한가지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문.93.지현이)
- 값비싼 하숙집을 내 힘으로 꼭 사수하겠다!이제 기숙사는 가기 싫다.....(철학.91.윤찬)
- 1000권의 책을 읽고 100가지의 일을 하고 10명의 진실한 친구를 사귀고 1번의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다.....(독문.94.성혜)

2. 내가 바라는 이성상

(가령 나랑 같이 여연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 여성학에 관심있는 남성이자 여성해방을 실천할 수 있는 남성 = 사교적이고 지적인 남성.....(철학.93.연희)
- 현지:내강 맞는 수준이면 좋겠지예.(미모,지성,말썽썽이 등등)
- 현지 친구:그런 영구 수준이겠네.
- 현지:뭐???!.....(중문과.94.현지)
-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하고 운명적으로 만나지는 사람이 나의 이성상이 될것이다.....
(독문.93.희진이)
- 편하게 느끼게 해 주는 사람. 능력있는(여기서 능력이란 지식보다는

- 지혜)사람.....(중문.93.혜주)
-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일문.93.수연이)
- 바다같이 푸른 꿈, 넓은 마음을 가진 씩씩한 한국인...(일문.93.희주)

3. 내가 만약 반대의 성이 된다면...

- (예:남자로서도 살기 힘든 세상 여자가 된다니 끔찍한 일이다?)
- 남자였더라도 여연에 들었겠지요?.....(영문.94.영아)
 - 일단은 당당하게 대중 목욕탕부터.....(철학.91.윤한)
 - 집에서 통행금지 시간이 없어지겠지.....(독문.94.광남이)
 - 먼주남성이 되어 자주여성과 함께 이 사회를 깊어지겠지.....
(국문.94.은경이)

4. 찰시장이 개방된다는데 여기에 편승해 성개방 문화가 더욱 활기를 띠는다면...

- (예:성개방 추세에 맞추어 나도 나의 모든 것을 개방하겠다?)
-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결코 개방할 수 없다.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지켜야 한다.....(중문.93.욱이)
 -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해경안이 안 보인다. 한겨레21에서 봤는데 반이 넘는 남자들이 매매춘을 암묵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성개방 문화, 특히 극심한 매매춘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까?
.....(영문.93.은진이)
 - 바위처럼 살아갈 것이다.....(국문.94.영각이)

5. 마지막으로 과 여연에 바라는 것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앞으로의 여연 공부에 임하는 자신의 투철한 각오!

- (가령 온 몸을 다바쳐 내 청춘을 불태우며 열심히 하리라..)
- 여성학 연구를 여연 스터디내에서만 끝내지 말고 과 급우들에게도 인식을 시켜 호응을 얻었으면 한다.남성으로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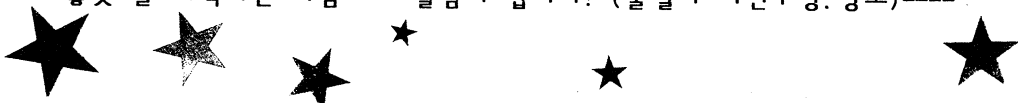
- 내 생각을 나타내 여연 발전에 기여하겠다.....(영문.94.성운이)
- 후배도 들어오고 했으니깐 좀더 자신있는 여연인이 되기위해 노력해야겠지.....(영문.93.지희)
- 충실한 모임이 될수 있게 ! 여연은 곧 나이다.....(독문.94.은주)
- 예전부터 여성의 권리에 대해 불만이였다.여자인 나로서 지위 향상에 노력 이 한몫 바치겠다.....(독문.94.수진이)
- 왜 남연은 없는 거야! 멍청한 남자들은 자신의 궁궐을 벗을 줄도 모르는 것 같다. 남연 건설 막세!!.....(철학.91.역머)
- 여연이 여성만의 기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여연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나 스스로 '여자이기 때문에'라는 변명아닌 변명을 늘어놓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한 인생의 주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하고 깨우치겠다.....(국문.94.강영이)
- 대학에 와서 여연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계속해 오면서 옛날보다는 좀 더 커진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일문.93.수연이)

***우리 잘나가는 여연짱들의 한 말씀!**

- 스터디 시간에 하는 책 킵에 많은 책,궁등을 접하고 생각하면서 여성과 남성,인간,사회,그들의 관계등을 열심히 고민하고 공부합니다.....(영문.93.승인이)
- 우리과에 여연이 올해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많이 도와주세요~
독문과에 여연의 자리를 확실하게 뿌리 박겠습니다.(독문.93.수정이)
- 여연 학우들을 잘 챙기는 존경받는 짱이 되어 볼까나?(중문.93.윙지)
- 새로 들어온 94학번들 모두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나 역시의 목맛큰 실천도 빵빵한 한해 었음 좋겠다.....(국문.93.승현이)

----충실하고 재미있는 답변 감사드리구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보니 앞으로 여연의 무궁무진한 발전과 여연이 인문대 뿐만 아니라 복현골 전체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수 있을것 같군요.

이렇듯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합시다! (울랄라 여연부장.광호)----



관심 표시를 하지 말라 8. 여자와 단둘이 있지 말라 9. 함부로 선물을 하지 말라 10. 여자에게 술을 권하지 말라는 등으로 아예 위험물(?) 옆에는 가지도 말라는 식의 행동지침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어쨌든 '서울대 성희롱 사건'으로 남성들이 옛날처럼 쉽게 그리고 함부로 여성들을 대할 수 없게 된 것은 분명한 듯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난처해하는 층은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과장이상의 중간간부들이다. 여사와원과 관련한 평소의 행동이나 감정이 자칫 '보복인사'로 오해될 경우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여사원들은 이번 사건으로 여성의 존재를 불편하게 느껴 자칫 기업들이 여사원 채용을 기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단다. 또 남성들이 여사원들과의 회식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 회식이 끝나고 소위 여사원의 '안전'을 걱정해 집에까지 동행을 자청하는 '기사도 정신'도 점차 구시대의 유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고 한다.

이렇듯 '서울대 성희롱 사건'과 그 판결이 몰고 온 여파는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단순히 여성을 성희롱의 대상으로 가볍게 여겨 왔던 남성들의 태도의 변화에 있다. 이제는 여성에게 노골적인 농담을 던지는 사람이 대범하다고 여겨진대거나, 여성의 외모가 당연한 화제거리가 되던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세로모임얘기

그 때를 아십니까? ㄷ! ㅅ? ㄷ! ㅅ

그때:

94년 4월 14일 오후 6시

인문대 여학생 휴게실 에서 여연지기 한 몸되기(?)가 있었다...

--막이 올라가면서 준비된 특별 무대

여학생회장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구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보시구 오늘 단합대회 즐겁게 노세요.

회장님과 여학 집부들: 하나똥 셋넷 \ 둥둥 셋넷 \ 하나똥셋넷 \

(춤과 함께) ㄷ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ㄷ ㅅ 모두가 힘들잖아
요 ㅅㅅ~~ (예고 ! 그냥 노래만 부르지..)

한동안 씨엌 ~ 러엌 ~



나를 중심으로 왼쪽에서 부터 난형이, 수정이(독문), 율리(중문), 승현이(국문), 수연이(일문), 나(강호우), 년경이(철학), 승임이, 혜진이, 윤림이(영문 + 늦게 등장한 엑스트라 성운이), 경주, 미진이, 춘희, 기욱이, 경예(고인) 까지 마주보고 오붓하게 앉아서 간략한 소개를 마쳤지.

나: 아까 내준 지침서 꼼꼼이 보고 얘기 한번 찐하게 해 보이시더. 먼저 여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접하게 되는데, **첫째로**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 한사람만 싸가 빠진다는 거. 가령 같이 공부할 자료 복사하라 공부할 내용 도서관에서 찾아보라, 또 스터디 시간에 혼자서 떠들라 헤헉-- 이제부터는 여연장 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서로 역할을 도와가며 합시다. 알겠죵 ? 착한 어년이들..

둘째로 고학번 선배가 없다는건데 과의 다른 학회를 보면 복학 선배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전공 학회인 경우에는 거의가 다 고학번들인데 여연은 지금 온 사람들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93,94 장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난 고학번의 설움을! 할매의 서글픔을! 인생의 무상함을!)

셋째로 여연을 하는 여연지기들의 태도인데 해도 그맛~ 안해도 그맛~ 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문제죠. 얘기도 없이 불쑥 불쑥 안오고 나중에 되서는 '바빠서~' 라고 얘기하면 그것으로 그만. 난 이런 사람이 **제 싫어 이잉~**

(마지막으로.. 라고 얘기하려는 순간 내 맞은 편 경예와 기욱이가 시루를 박으면서 주고 받는 말 曰)

경예: 상화는..? (상화:인문여성 7호가 키워낸 스타)

기욱이: 으~응, 오늘 바빠서 못 온대.

나:(짜 악 째려보며) **아니 이 싸얌등이 !!** (이성을 찾아서 헤-험) **마지막**으로 커리먼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인데 각과 여연장들과 만나 봤을때 여연장들이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새내기들은 처음하니까 모르지만 재학생들같은 경우에는 새내기들 받을 때마다 했던 거 또하고 또하고 .. 결과적으로 너무 식상하다는 거죠. 또 몇년 전 부터 했던 것이니까 내용면에서도 너무 뒤떨어지죠. 여성학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세에 민감해야 되요. 이제부터 신문 조금씩 읽도록 합시다. 후배들한테도 조금씩 얘기해주고 ... 만약에 후배가 TV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때 선배가 '애야 그 TV 프로면 두장 뒤 다섯째 줄에 바로 이런 기사가 있었던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마~악 얘기를 끝내려는 순간 아까부터 느껴지는 짜릿한 눈빛(바로 기욱이가 던지는 눈빛)에 너무나 순진한 본인 당황하여 曰 **너의 눈빛이 너무 뜨거워서 초코렛이 다 녹잖니..?** (그때 초코렛이 없었던 관계로 정정합니다.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 **너의 눈빛이 너무 뜨거워서 김밥이 다 쉬잖니..?**)

(미진이 앞에서 계속 킥킥 웃고 있다. 다른 사람들 한개씩 먹고 있는 김밥 혼자 두개나 입안에 넣고 말야.....)

나: 여러분들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국문, 일문: 삶의 여성학, 중문: 여자는 왜, 고인: 여성과 가부장적 체제, 영문: 철학과 경제) 아 ~그런 공부 하고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년경이 : 언니 너무해! 우리과는 안 물어보고. 진짜 너무하네.

- 이 때 이 위기속으로 당당하게 뛰어든 한 男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 男을 엑스트라 (지나가는 사람 1)라고 부르지 -

그 男 : 아~ 늦어서 죄송하구요 늦게 온 선물로 이거... (뺨튀기과자. 우리 몸에 우리것이 좋은 것이여 ~)

그 男 : 저는 요, 어찌구 저찌구 입니다. 다른 사람들 잘 모르는데...

나: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소개하고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왔지만 그래도 봐주고 간략하게 다시 한번만 더 소개 합시다. 저쪽 경예부터...

경예 : 아 ~ 또 하나 ??

-막을 내리면서 한 마이크 더...

오늘 이렇게 차린건 없지만 많이 와줘서 진짜 너무 기쁘구요, 오늘 은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뭔가 하나라도 얻었다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자주 보고 싶구요, 그리고 더 힘내서 더 열심히 합시다.

모두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아니 이사람이 ! 승임이, 우리가 대답을 안했어.

승임이하고 우리는 열심히 안할건갑지 ?? 기억해 두겠어.

끝내 열심히 하겠다는 100%로의 대답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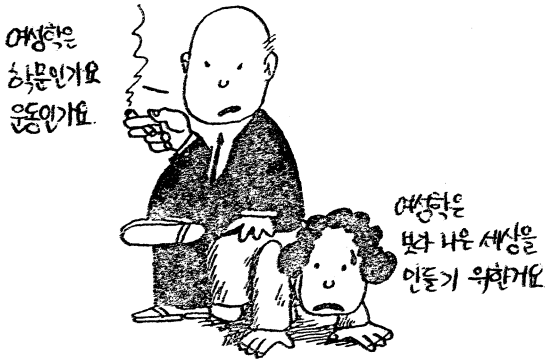
이리하여 진지한 토론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그날 단합대회를 끝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과 여학 집행부등의 감동적인(?) 특별 무대!-비록 문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안간힘을 쓰면서 열심히 한-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구요

또 그날 굉장했던 고인라, 늘 먼훗날스런 중문라, 국문라, 아직 새내기도 없으면서 공짜라고 설문지를 무려 10장이나 가져갔던 독문라(다 작성 안해 오기만 해봐라..), 그외 사정으로 못 참가한 여연 여러분 등!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합시다. ■

한글로 써주세요

여성학이란 무엇인가



여성학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가
성별에 따른 구속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자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 작업

불과 20년 전만 해도 '여성학'이란 이름을 아는 사람조차 매우 드물었을 만큼, 여성학의 역사는 짧다. 그러나 그 짧은 역사에 비해 오늘날 여성학은 전성시대라는 말을 들을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였다.

여성학이 학문으로 탄생되기 훨씬 이전부터-서구에서는 2백년전, 그리고 한국에서는 1백년 전부터-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 대한 투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투쟁은 흔히 감정적으로 되기 쉬웠으며 현안 문제만 해결되면 쉽게 가라앉곤 했다. 여성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잠깐 동안의 열기가 식으면 그 뿐, 여성문제는 대부분 문제 여성들의 개인적인 문제거리로 취급되고 여간해서는 사회문제로 쟁점화되지 못했다.

여성학은 1960년대 후반 새로운 여성운동의 물결 속에서 탄생되었다. 당시 서구의 캠퍼스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민권운동, 학생운동, 반전운동, 반문화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던 여성들 사이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운동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왜 모든 전통적 가치에 도전하는 남성들이 유독 남녀 관계에 대해서만은 전통적 가치를 고집하는가 의문을 품게 되었다.

또한 여성들은 이제 계급문제나 인종문제가 사라진다 해도 여성문제는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리하여 여성문제는 여성들 스스로 주체가 됨으로써만 풀릴 수 있다는 확신 아래 그 동안 잠잠했던 여성운동이 불길처럼 일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한 구호의 차원이 아닌, 보다 설득력 있고 보다 과학적인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이 여성 스스로 여성문제에 다각적으로 접근하도록 이끌었고 수많은 여성들의 학문적 열정을 자극하였다.

☞ 남성들의 인간화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학문

☞ 여성의 인간화 지향

여성학은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이기 때문에 기존 학문과는 달리 뚜렷한 가치 지향성을 띠고 있다. '여성학은 어떤 학문인가'라고 물으면 그 대답은 '여성에 관한,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성을 위한'이란 말로, 그것은 여성의 인간화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여성학이 인간학이기를 주장한다면서 왜 굳이 '여성'이란 수식어를 학문의 앞자리에 붙이느냐, 남성들은 남성학 따위를 만드는 편협한 짓은 안하지 않느냐고 빈정거리기도 한다. 유사 이래 모든 지식의 주체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언제나 객체로서만 존재해 왔다. 따라서 말로는 객관적·중립적이라는 학문이 실제로는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에 지배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객관적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들, 예를 들어 여성은 생리적으로 사랑에 죽고 산다든가, 질투심이 많다든가, 미에 관심이 많다든가 하는 여성 심리 이론의 허구성을 보라. 또 여성의 열등성에 대해서 기존 학문들이 어떻게 합리화시켜 왔는가를 살펴보라. 이런 의미에서 중립적이라고 한 학문들이 실은 편파적인 남성학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학은 이러한 편파성을 하나하나 비판하고 수정하며 변형시켜 나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여러 학문과 상호 연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여성학의 분야는 매우 광대할 수밖에 없다.

인터뷰

『인 · 문 · 여 · 성 · 을 · 찾 아...』

인문여학의 자랑, 총여 여연부장(고인, 91, 박경아)을 인문여학 여연부장이 만나봤습니다.

***우선 인사 한 마디 거하게 해주세요.**

*연족복현의 일번지 인문대! 여학생 운동의 모범 인문여학!!

인문여학의 자랑 “인문여성 8호”의 발간을 역수로 축하합니다.(고맙습니다!)

1.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몰라보게 변한 것은요?

어렸적부터 억연히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때는 여성문제의 원인이 남성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혹시나 ‘여자가...’ 등의 말을 하는 남자가 발견될 시에는 손톱을 세우고, 입에 거품을 물고 싸웠었지. 근데 나중대로 여성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다보니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남성때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면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남성등에 대한 적개심도 사라지고 조금은 남성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 총여에 여연부장으로 있으면서 모범이 되는 과 여연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경대내에는 30여개의 여연이 건설되어 활동중입니다. 문제도 많고 어려운도 있지만 나중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 칭찬하고 싶은 과는 많은데 그 중에서 공대 컴퓨터 공학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세워져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과 학우들에게 여연 소식지, 신문을 내고 또 여학생회 건설도 이루는 등 너무나 열심히 움직이고 있답니다. 장하다! 공대 훌륭하다! 컴퓨터 공학과!

구체적으로 특정한 과는 없지만 선배들이 게으른 피우거나 낭창한 과 여연은 진짜 싫어~잉

3. 여연에서 공부할 때 이런 점은 어려웠지만 이렇게 해결했다.

여연 공부를 조금 해본 사람들은 참 많이 당당해합니다. 문제는 알겠는데 해결전망과 대책이 없다고. 물론 저도 초기에는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그러나 당당함을 일단 무시하고 책을 읽고 스터디하고 친구들과 토론하

는 과정에서 깨달았죠. 분명 여성문제가 단 몇년 사이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평등한 세상이 꼭 올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는 힘든지 않아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즐겁게 공부하고 열심히 여성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각 과 여연에 예쁜 94새내기들이 많이 들어왔길랑요 새내기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세요.

새내기들에게 '여성문제가 뭔지 아니?', '여연에 안 들어 올래?' 하고 얘기를 꺼내면 대다수가 '그런데 관심없어요' 라고 대답해요. 그런 새내기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네가 관심이 없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가 이땅의 여성으로 살아가는 한 너에게는 항상 여성문제가 꼬리표처럼 붙어다닐 거다."라고. (짝짝짝 ~ 박수소리)

세상에는 배움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도, 애정을 느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새내기들이 추구하는 바가 너무 자신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행복, 여유, 이상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졌으면해요.

5. 소문에 듣자하니 굉장히 멋진 분과 열애 중이라던데...

여성학 공부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연애관은?

너무 힘드고 지쳐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이 사람을 만났죠. 사람은 좋았지만 다시 연애를 한다는 것이 겁이 나서 굉장히 망설였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의 눈물어린(?) 호소와 열렬한(?) 구애로 연애를 시작하였고, 이제 40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에고고 누구는 진짜 좋겠다~)

그동안 싸우기도 하고 서로 상처주기도 했지만 내 생애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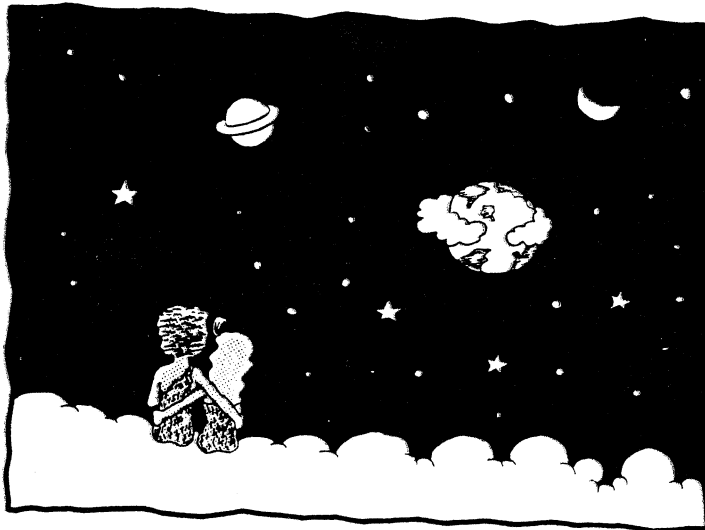
우리는 연애 관계의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벌중치 준비..)

그 첫번째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얘기하고 비판하고 충고하지만 마지막 선택은 당사자에게 맡겨요. 또 우리는 별 시시콜콜한 것부터 해서 수준높은(?) 것까지 대화의 폭이 넓어요. 예츨 들어 결혼후에 강아지를 몇마리나 기를지에서부터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까지도 대화를 나누죠.

우리는 서로의 단점과 잘못을 고칠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이 부분부터는 여성변자 관감 불가)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같이 사 앓 합니다. 이러한 것 등이 이후 결혼 할 때 모진 탄압(우리는 동성동본이다. 에그머니나..)에 부딪혀도 변치 않고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일 것입니다.

두 분 영원히 영원히 더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



과 과 탁아소모임 이야기

우리라 탁아 소모임은요...

#중등과

숫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막강함을 자랑하는 우리과 탁아부는 능력 있고 예쁘고 착한 탁아부장 93학번 정리와 삼박한 94학번으로 이뤄진 3명의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뿔뿔뿔뿔 자봉단 예리,경주,무노기와 없는 살림이지만 딱딱이값 술값 아껴서 귀여운 아그들의 탁아환경 개선에 전 재산(?)을 투자하는 이 시대 마지막 휴머니스트들인 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탁아부장과 그의 풀마니들로 이뤄진 우리 탁아부는 탁아환경개선 투쟁사에 큰 획을 그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조직(?)을 키우고 있습니다.

#절학과

안녕하세요 저는 절학과 여학생회에서 탁아부장을 맡고 있는 93학번 최영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과에선 '탁아 후원회와 자원 봉사자'모집을 끝냈어요. 먼저 '탁아 후원회'에는 94학번 새내기들의 엄청난 호응과 93,92,91학번 그리고 '90이상 고학번 선배님들의 관심으로 자그만지 60명이 신청해 주셨구요, 자원봉사자에도 새내기 몇명이 모였어요. 하지만 저의 부덕으로 한 번도 활동을 나가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보여줄지 몰랐어요. 학우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구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문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매일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나와야만 하는 어머니들의 시련과 아들의 불의의 사고, 이는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따뜻한 마음을 받아 비영리 민간 탁아소가 성립되었습니다. 현 비영리 탁아소의 난점인 재정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곳곳에 자원봉사자와 후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

재 영문과 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10명이며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과 다른 학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문과

저희 과에서는 94학번 5명의 학우들이 감나무골 탁아방에 나갈 계획으로 있어요. 어떤 놀이 내용을 준비해 갈까? 고민도 하구요, 왜 비영리 탁아방이 운영되고 있는지 제법을 통해 여성의 현실과 정부의 여성정책의 허구성을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그인과

이쁜 아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들이 모여 만든자리입니다. 연로하시지만 너무나 작은 마음을 가지신 '90 강익석 선배와 항상 구여번 '94 태희, 집없는 식석이 미정이, 모두들 관심있는 눈으로 커가는 우리들을 지켜봐 주세요.

@남녀구분

탁아소에서 낮잠자는 시간에 애들이 소근거린다.
“너 남자야, 여자야?”
“몰라”
“그래? 그럼 내가 봐줄게”
그 애가 이복을 제치고 보더니
“넌 여자야”
“그걸 어떻게 알아?”
“바보야, 넌 빨강 양말을 신었잖아”
?!?



홍익대학교

학우들의 탁아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홍영옥:

경북대 수의대 87 학번

6대·7대 총여 탁아부장

전, '디딤아가방' 교사

현, 민시협(민주시민운동협의회)

간사

빈번 탁아소 자원봉사 모집!

방세가 없어 쫓겨나는 아이들!

이러한 문구들로 시작된 경대 여학생회 탁아활동의 자원봉사자 후원은 전국 대학에서도 드문 양적 팽대음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직접 연결되는 자원봉사나 후원회 모집이 여학생회 탁아활동의 전부가 되버린 지금. 우리는 왜 우리들이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 조차도 되물을 수 없을 만큼 관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원해왔던 대구지역의 비영리 탁아소등이 차례대로 문을 닫는 현실과, 우리나라 탁아의 90%이상을 떠맡고 있는 곳은 민간영리 시장이라는 것을 볼 때 단순히 비영리 탁아소 자봉과 후원회 활동이 탁아문제에 별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탁아의 필요성과 역사, 문제의식등을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이런 문제의식 속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바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 탁아 왜 필요한가?

원칙적인 입장에서 따지면 여성의 평생노동권 보장과 사회 재생산 기능인 육아를 가정+민간+기업+정부가 함께 담당하는 육아의 사회화를 위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탁아가 필요합니다.

대상은 주로 취학전 아동이고 부모의 노동시간동안 집단적으로 아동보호와 교육(보육)을 담당하는 탁아소가 80년대 이후부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탁아소 왜 생겨났는가?

보육의 역할을 일차적으로 언더에게 책임지우는 우리 사회에서 취업모의

자녀가 탁아가능의 대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혼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이고, 기혼 여성 인력은 값싸게 힘든 노동에 고용할 수 있는 우리사회 노동현실과 맞물려 이들의 탁아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저렴한 보육료, 보육시간의 연장, 보육대상 연령의 연소화등... 이런 문제의식을 해결하고자 80년대 빈민,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먼갠에서 비영리탁아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몇몇이 가정등을 대상으로 여성문제, 지역문제, 빈민문제 해결과 올바른 아동보육의 다양한 역할들과 연관되는 이른바 탁아운동을 시도하며 80년대 우리나라 먼갠탁아사를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여학생회 탁아활동의 필요성

이 땅 절반의 여성과 남성으로써 부딪힐 탁아문제에 대한 사회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배워나가는 것은 학우들이 대학이라는 소사회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식입니다.

특히나 여학생운동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여학생회에서 모범적으로 학우들을 지도하고 많은 학우들을 여학생회 공간으로 초빙할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역에 모범적으로 탁아가능을 담당하고 자원봉사자 후원회의 손길이 절실한 대구지역에 저소득층 몇몇이 부부 아동등을 대상으로 비영리로 운영하는 탁아소들과 연대활동을 펼쳤습니다.

▶여학생회 탁아활동의 현주소

우리의 활동이 탁아소에 직접 현장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후원 활동에 급급할 만큼 대구의 비영리 탁아소들을 재정난, 인력난의 악순환을 겪고 있

었습니다.

하지만 학우들의 자원봉사나 후원활동도 지속적이지 못하고 특히나 현장 활동하는 자봉들의 대부분을 탁아소에서 신뢰할 수 없을만큼 이 활동내용조차 불안한 현실입니다. 또한 탁아소에 도움이 되고자 자봉연결 및 후원을 했는데 4개 탁아소가 문을 닫을만큼 우리의 활동내용이 탁아소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92년 5월 방세가 없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먼들레]에 방세를 마련해 전달했는데도 당해 11월 [먼들레]는 문을 닫아 5월 우리가 내건 “방세가 없어 쫓겨나는 아이들”이란 선전문구에 묘한 이중성을 느낄만큼 우리의 활동이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학생회나 탁아소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활동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보고, 9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문을 닫은 비영리 탁아소의 아동들이 다른 어느 탁아소에 보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활동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앞으로 탁아활동은 이렇게...

첫째, 우리의 활동내용을 탄탄히 세웁시다!

이제까지 여러군데 갈라진 자봉과 후원회로 매년 반복되는 여러군데 탁아소의 시급한 사안들이 개별이나 자봉들에 의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었고, 결과적으로는 어느 탁아소라도 주인된 입장으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사회의 탁아기능에 복무하는 학우들로서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늘 보조세력 그것도 불안정한 세력으로 전락한 우리 입장을 굳건히 세워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에 경대 총여학생회 산하 [탁아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적어도 여학생회 활동속에 탁아를 고안하는 사람들은 뚝뚝 뭉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탁아에 기여하는 세력으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둘째, 탁아활동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합니다!

단순히 비영리 탁아소 현장 활동하는 자봉과 후원회 모집은 우리나라 탁아복지를 저해하는 민간 봉사활동으로 전락합니다. 왜 이런 탁아소가 생겨나고 우리가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 끊임없이 되물어 보는 자세로 무엇보

다 탁아에 관한 다양한 연구작업을 시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정책적 탁아기반이 탄탄하게 서도록 돕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우들의 지식에 대한 갈망으로 탁아문제를 이해하고 배워 탁아를 둘러싼 현 사회상황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생활의 전반적 향상과 더불어 빈민지역의 생활요구 확대와 교육열 향상, 탁아정책의 변화된 요인들을 올바르게 직시하여 비영리 탁아소들이 자리매김할 바를 인식하고 그 과정을 우리가 할 역할등을 찾아야 합니다. 즉 막연히 80년대 탁아활동을 답습하고 있는 현 실정을 빨리 전환하여 지역사회의 바른 탁아운동에 복무하는 대의 속에 비영리 탁아활동을 지향하는 우리의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새해,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비영리 탁아소의 모범을 만들어 봅시다.!!

비영리 탁아소는 탁아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구어낸 곳으로써 활짝 피어야 합니다.

자부모, 교사, 지역주민, 후원, 자원활동이 탁아정책의 직 향상, 교사처우 및 자립향상, 서민들에게 부담없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보육환경을 제시하는 탁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모든 성과를 통해서 탁아소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간의 [대구지역 탁아소 연합] 지원활동을 계속 연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올해 4월말 탁아소 문을 닫고 재건 준비기 체계를 도입한 [디딤]을 우리 손으로 세우고 향후에도 주인으로써 지켜나가 비영리 탁아소의 모범을 만들어 봅시다.

▶ 맺음말

91, 92년 경대 총여학생회 탁아주체에서 [디딤]의 교사로 [디딤]탁아소 사업을 잠시 중단할 결정을 내리기까지, 아직도 저에게 그간에 자원봉사자로서 후원회로서 탁아활동을 경험한 많은 경대 학우들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사로 서기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모습으로 남아있고 싶은 오기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착상시절 자원활동가로서 비영리탁아소, 나아가 우리나라 탁아문제에 관한 좋은 경험을 했고 무엇보다 인격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3~4살 연령을 그것도 빈민지역에서 주로 생계를 위해 벌이를 하는 가정애 아동들

을 돕아야 하는 탁아에 대해 누구보다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간 비산동에 직접 탁아소 경영자로서 교사로서 아동등을 돌보며 많은 주원등을 접하며, 실제로 제가 감수해야 할 어떤 희생적 부분만큼 저의 탁아소에 아동을 맡기는 학부모들의 생활에 대한 의식과 탁아소에 비협조적 인 태도에 갈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디딤]에 후원이 탄탄했다면 또는 정부지원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면, 또는 당장의 힘든 상황을 같이 개척할 일꾼만 있었다면 굳이 이곳에 문을 닫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혼 서원들의 소득수준과 주거 상황이 낮은 것이 사실이고 아 빠의 생활능력 상실이나 무분별한 생활로 전전긍긍하며 생계비라도 벌어보 고자 억노등을 하는 언마, 탁아 연령대의 자녀가 두명이어서 보육료 지출 에 먼감한 언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언마, 대부분 사회활동에서 능력있 는 경제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땅한 놀이시설이 없는 이 곳에 주변의 탁아연령대 아동들이 놀러오기도 했는데 굳이 탁아소를 자택 없는 저소득층 몇벌이 부부 아동 보육이란 고정적 개념보다 탁아소가 위치 한 지역 주원들의 편리함 그 아동들의 공동체 생활 경험에도 이용될 수 있 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낼수 없고, 특히 이런 탁아소의 취지를 살려낼 만큼의 능력을 펼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제 입장에서 이런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 니다만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자봉이나 후원회들이 탁아활동가로서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면 [디딤]이 이렇게 까지 되진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간 교사인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대타하다고들 하지만 그렇게 말한 이 들중 대부분이 제가 또는 [디딤]이 원하는 자리를 지켜주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코 대타한 일이 아니고 착내 탁아주체를 자봉이든 후원이든 결코 어 려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을 지켜주면은요!!



탁아소지

■ 후원금에 대해 ■

각 과 탁아 후원회원들께서 내신 후원금은 대탁과 디딤 탁아방 전세금 마련을 위해 쓰입니다. 지금 현재 디딤 탁아방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간의 준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져 어려운 탁아방의 큰 힘이 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온라인 번호:801-06-424870 한은정

■ 탁아특별위원회에 대해서 ■

올해 4월부터 제기가 되어 교내에 '탁아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모임은 이제까지 지녀왔던 탁아활동의 한계-탁아 자봉하는 이와 후원회의 무책임성, 교양 부족 등-를 극복하고 탁아활동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고민을 하기위해 '디딤'과 총여학생회가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탁특위에서는 앞으로 탁아 소모임 건설로 자봉단을 교양하고 빵빵한 후원회를 조직해서 탁아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탁아방 방문기

디딤 다녀오고 나서...

고인과 94학번 노미정

대동학교 기간이었다. '농촌 어린이에게 탁아소'이라는 기치 아래 성금을 모으기 위해 칫솔을 팔고 있었다. 그러나 지나가는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쓰는 1000원은 전혀 아까와하지 않으면서 남을 도와 주는데는 설명을 해 주려고 붙잡는 손조차 뿌리치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다. 그래서 결심했다. 나는 이런 미운 사람들 속에 속하지 않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그 일이 탁아자원봉사와 후원회였다. 탁아자원봉사는 직접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후원회는 한 달에 2천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게 된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얼마씩의 돈을 낸다는 것, 모두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난 남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는 일을 해 보기로 했다. 지금의 현실이 어떤지도 알고 싶었고 몸으로 부딪혀 보고도 싶어서 탁아 자봉활동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디딤'을 다녀오고 나서야 뭔가를 하겠다는 나머지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솔직히 가기 전에도 난 먼저 나를 먼저 생각했다.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놀러 간다는 기분으로, 그리고 여러 아이들이 내게 매달리면 내가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만으로 ...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우리가 찾아 간 곳은 비산동 공업지역으로 아빠,엄마가 모두 돈을 벌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한 동네였다. 우리가 찾아간 탁아방도 가난한 동네만큼이나 작았다. 그리고 많으리라고 생각했던 아이들도 4명이 전부였다.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줘야지'라고 생각했던 나였지만 4명도 힘이 들었다. 그런데 탁아방에 계신 선생님이 계속 혼자서 이제 걸음마를 배운 2살짜리 부터 6살짜리 아이까지 돌보고 계셨다. 무척 힘이 부치시는 모양

이다. 내가 갔을 때 2살박이 애기가 결막염을 앓고 있어서 병원에 데려가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그러나 이 탁아방마저 없어질거라 한다. 시설도 부족하고 공간도 좁아 아이들이 하나 둘씩 나가는 바람에 탁아방을 꾸려나갈 경제적 여건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이 탁아방을 살리고 싶다. 많이 도와 주세요, 2천원도 좋고 3천원도 좋아요. 여러분의 힘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 탁아도서소개

-반쪽이의 육아일기-

최정현-미학사

“내가 육아일기를 냈다고 하자 엄마가 모를 아빠만의 어떤 육아비결이 이 글에 담겨 있거나 아마 최 아무개네집은 육아에 관한한 아빠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모양이다.

나는 어디까지나 부모된 사람의 한 쪽으로서 나의 몫을 당당히 챙겼을 뿐이고 아내와 함께 부모 몫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집에 있을 때면 누구든 덜 바쁜 쪽이 아이를 돌보며 한 쪽이 나갈 때면 나머지 한 쪽이 이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 아내가 없을 때 그 몫은 당연히 내게 떨어지게 마련이다.....

아이 기르기의 아빠몫이 커지면서 아빠와 함께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것이 결코 낮설지 않은 풍경이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아이들의 엄마든 아빠든 서로의 아이들에게 애정을 느끼며 부모 되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시작할 때부터 남녀 편가르기는 사라질 것이다.”

이 책은 1장에서 아빠 반쪽이와 딸 하예린의 모습을 만화로 감동적이고 재미있게 펼쳐내고 있으며 2장에서는 아빠의 육아일기, 3장에서는 일본의 육아현장을 보여주고있다.

아래에 1장 중의 한 내용을 담아 봅니다.

❖❖❖필 하지를 못해❖❖❖



*편집음마치며...

나 할말 많다 - 여연.깡초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면도 많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해서 더 알찬 내용으로 더 많은 분량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아니 아예 인문여성 특집호-여연으로 만들어 볼까나?
 나: 할매 나, 너무 아쉽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몇장 더 쓸까?
 할매: 안돼! 지금도 너무 많아!
 나: 진짜 너무해~
 많이 도와 준 각 과 여연들에게 감사드리구요,
 이번에 인문여성 1/2을 분담 받으면서
 할매의 속셈-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제-을 알아뵈따.
 할매 우리 나중에 자축회 하까? 할매 진짜 수고 많이 하셨사와요. 나두!

.....

여연부장이 할매라고 부르는 - 편집부장.수미

이 공간을 채어나갈 때가 가장 뿌듯하면서도 아쉬움이 많다.
 7호에서 했던 "8호를 기대해 주세요"라는 말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좀 더 고민을 한 끝에 우리 여연부장과 탁아부장의 손, 발을 빌렸다.
 고생 많았제. 나는 나대로 원고 독촉하고, 부탁한 원고들은 잘 안들어오고...
 인문여성이 무사히 나오는데 크게 공헌한 점, 잊지 않을게.
 원고 써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인문여성 8호 어때요?

.....

별 큰 할말 없는 - 탁아.미진이

여덟번째 인문여성이 나온다?
 인문여성을 만들기 위해 세운 술한 밤. 원고를 받기위해 뛰어다닌 절력. 컴퓨터 말썹으로 태운 속...
 정말로 모든 시련에 굴하지 않고 바우처럼 해내는 위대한 여성, 편집부장님
 존경스러버유. 수고하셨어요.

달은서

망월동에 서서

김남주

작고된 대지의 별, 오월의 시작들이여

나저처럼 당신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어둠 없이 여름 없이.

누가 쓴 꽃도 흰 속에 비결 속에 묻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의 자음을 위하여

사람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어제의 분수에 기억하고

취미처럼 분으로 열어서된 오월의 영웅들이여.

당신들은 결코 죽음의 세계로 갈 것이 아닙니다.

꽃이처럼 오월의 가슴팍은 아직도 종말에 맞서고 있습니다.

저처럼 당신들의 어깨로부터

숨이 막힌 숨이 막힌 분들의 생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 태어나

당신들이 흘린 눈물의 여운에 필과 다리를 적시고

주먹을 불끈쥐고 당신들이 매쳐 다 걷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의 자음을 위하여

사람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여제 당신들의 자식들은 떠날 준비까지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같은 영으로 무장하고

그런 당신들처럼 전진하고 있습니다.

작고된 대지의 별, 오월의 영웅들이여.

어둠에 묻혀진 세월은 떨려서 승리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어나 반어다오, 승리의 영예를 그 때 거둔다...



열린 이동 여학생회

19일:(10시-4시)-물갈이 투쟁 서명

학우들과 토론-물갈이 투쟁, 성폭력 특별
법, 그 외 학우들의 요구안

(12시-4시)-비디오 상영- '어린이 성폭행 고발-P.D수첩'
'어린이 성폭행 예방-다큐멘
타리'

(5시)-----강연- '성과 사랑사이'-이보영 강사(대구대
여성학 강사)

20일:(10시-4시)-물갈이 투쟁 서명

학우들과 토론

(11시-4시)-비디오 상영- '침묵에 대한 의문'
'자각'

(4시)-----강연- '탁아의 현 주소와 전망'-홍영옥 강사
(전 '디딤' 교사,
현 민시협 간사)

학우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발행일: 1994년 5월

발행인: 철학. 91. 박은희

편집인: 중문. 91. 권수미

인쇄처: 집현전 T. 942-8921 (경대후문)

